

1. 금융역량 강화 수단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규제, 금융교육, 상품 설계나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금융정책당국은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돕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상품공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다른 상품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교육, 즉 인식제고, 정보, 지침(Instruction), 객관적인 조언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재무선택과 금융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지식, 기술, 태도, 행동)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²⁵⁾ 금융교육이 금융지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Kaiser et al.(2022)은 전통적인 금융교육을 크게 사내 복지 설명회 등을 활용한 직장 내 금융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육, 개인화된 일대일 금융코칭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비전통적인 금융교육 사례로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마을 현장지도원(Extension Agents)이 2주나 3주 간격으로 일대일 또는 그룹회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정보, 금융교육과 동기부여 내용으로 구성된 참여형 이주 노동자 대상 워크숍, 재무 관련 이슈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이용한 정보 제공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편향이나 심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나 선택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후생을 높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퇴직연금(401(k)) 자동가입 제도나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25) OECD의 「금융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원칙과 모범관행에 관한 이사회 권고」는 금융교육을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개념 및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 정보, 지침(Instruction),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 위험과 혜택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 나아가 자신의 금융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함. 동 권고는 2005년에 채택되었고, 2020년에 폐지됨

OECD(2008)는 금융역량 강화를 통한 재무성과 개선을 위해 정책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정한 은퇴소득확보라는 맥락에서 <그림 V-1>과 같이 제시하였다. 금융교육은 은퇴계획, 저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관련 정보나 지침 제공,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은퇴소득확보를 도울 수 있는데,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목표 대상 집단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내용과 전달방식을 채택할 때, 해당 소비자들의 행동과학적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림 V-1> 금융역량 강화 수단: 적절한 은퇴소득 보장

규제(Regulation)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	기타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보호 • 정보 제공(상품공시 등) • 투자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제고 • 정보 제공 • 지침 제공(Instruction) • 조언(Ad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가입 (Automatic Enrolment)

주: OECD(2008) Figure 2.1.을 수정

2. 실험설계 배경 및 개요

가. 실험설계 배경

1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약 32.5%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약 49.2%가 부채가 있고, 이 중 61%가 빚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은퇴 가구 또는 은퇴 직전 가구에 있어서 예산관리나 은퇴소득확보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낮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저소득·저자산·고령층의 재무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퇴직연금을 수령한(연금,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약 60.2%가,²⁶⁾ 개인연금을 수령한(연금, 전액 또는 일부 일시금) 적이 있는 응답자들 중 약 98.6%

26) 1차 조사 응답자 중 780명(응답자의 26%)이 과거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었고, 이 중 345명이 퇴직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퇴직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었고, 218명은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가 전액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했다고 응답했다.²⁷⁾ 인출금은 대체로 통장에 예치하고 생활비나 비상금으로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에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출 행태는 중고령자의 재무관리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을 생활비·목돈·투자 목적 등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가, 언제까지 쓸 수 있도록 배분할 것인가 등 복잡한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언을 받는 중고령자는 소수(12.2%)²⁸⁾에 불과하였다.

1차 조사는 중고령자 간 금융이해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또한 확인하였다. 일반 금융 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63.6%였고, 저학력,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금융이해력이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금융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다. 금융이해력이 낮은 이 취약계층은 금융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 역시 낮았다. 정작 정보와 조언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이를 소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1차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재무관리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경우, 조언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66.7~88.8%의 만족도를 보였다.²⁹⁾ 전문적인 금융 조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민간 경로로, 세무사, 회계사, 금융회사 직원 및 금융전문가 등 유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다. 둘째는 공공 경로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이다. 특히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는 인지도는 낮았으나(전체 응답자의 약 24%만이 서비스를 인지함),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70% 이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가 이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료의 공신력 있는 공공서비스는 유료 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도 접근 가능하며, 높은 만족도와 이해도 향상 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적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7) 응답자 중 1,223명(40.8%)이 과거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었고, 이 중 630명이 개인연금으로부터 연금소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거나, 개인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었고, 이 중 621명이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금을 수령했다고 응답함

28) 1차 조사에서 재무관리 의사결정 시 조언을 활용한다는 응답자(43.1%) 중 가족·친지·친구가 아닌 금융기관·세무사·회계사·변호사·공공서비스 등을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28.2%)을 결합하여 도출함

29) 6점 척도로 응답한 만족도 중 ④~⑥점으로 응답한 경우를 '만족한다'로 분류함

공공 재무관리 서비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 접근성이다. 앞서 확인했듯이, 공공 재무 서비스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하였다. 중고령자의 75% 이상은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인지 못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지도와 접근성 향상은 중요한 과제다. 둘째는 정보의 전달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개인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가 제공되는 것과 실제로 이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복잡한 금융 개념을 포함한 재무진단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 중고령자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은 이 중 두 번째 과제인 정보 전달 형식에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금융정보를 중고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정책 현장에서 카드뉴스처럼 시각적 요약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학습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연구는 시각적 요소가 정보 전달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Mayer and Moreno(2003)는 시각 자료와 텍스트를 결합할 경우 인지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unlap and Lowenthal(2016)은 텍스트만 제시하는 방식보다, 단순화된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시각적 요소(인포그래픽)가 학습자의 이해 및 정보 처리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정보를 분절시켜 제시할 때 학습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ayer 2009). 이러한 장점에 기반하여,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정보 전달 시 카드뉴스 형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드뉴스' 섹션을 운영하며,³⁰⁾ 금융위원회 역시 정책 홍보자료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한다.³¹⁾

한편, 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요약 형식이 항상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도 있다. Buljan et al.(2018)은 실험의 참가자들이 인포그래픽을 더 선호하고 읽기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지식 테스트 점수에서는 인포그래픽과 서술형 텍스트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Sung and Mayer(2012) 또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된 자료를 받은 학생들이 시각적 요소가 없는 집단 대비 만족도가 높았으나, 기억 수행에서 유의미한 향상은 학습을 돕는(Instructional) 시각적 요소가 포함된 조건에서만 관찰

3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홍보센터-카드뉴스

3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자료-카드뉴스

되었다. 이는 시각적 요소가 자료 읽기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유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이해·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설계가 중고령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Fenesi et al.(2015)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은 이미지와 내레이션이 결합된 조건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인 반면, 중고령자는 텍스트와 내레이션이 결합된 조건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연령별 차이가 중고령자의 작업 기억 용량 감소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단편적인 이미지보다는 텍스트처럼 맥락 단서를 제공하는 매체가 이해를 보조해 인지와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은 시각적 요소가 가미된 형식이 반드시 학습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중고령자에게는 효과적인 정보 제시 방식이 일반 성인들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설계하였다. 금융감독원 무료 재무진단이 제공하는 재무관리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를 원용하여, 은퇴 후 소득확보 방법과 연금계좌 활용에 대한 정보를 담아 간단한 참고자료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자료는 텍스트형(금융감독원 자료 원용)과 카드뉴스형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하여 실험 참여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어떤 방법이 소비자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해당 주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실험 개요

〈표 V-1〉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55~64세 성인 남녀
표본 크기	총 2,400명(유효표본)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1.1\%$
조사 기간	2025년 11월 19일~ 12월 10일
조사 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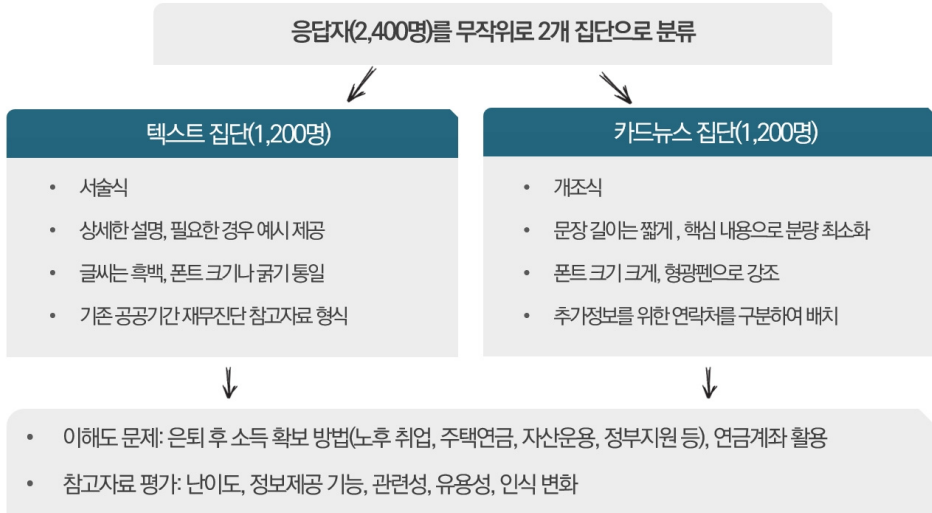
55세~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와 달리, 소비자실험의 대상은 55세~64세로 한정하였다. 이는 소비자실험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은퇴소득확보(노후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 지원), 연금계좌를 활용한 투자 및 절세, 노후 준비 등과 같이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초기 단계의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내용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패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력 및 소득 수준 등의 잠재적 표본 편이가 65세 이상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실험 대상자, 2,400명을 거주 지역, 성, 연령을 바탕으로 각각 1,200명씩 두 개의 집단으로 임의 할당한 후, '은퇴 후 소득확보 방법'과 '연금계좌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되, 각각 다른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카드뉴스 집단(이후, 텍스트 집단)에게는 서술식으로 작성된 텍스트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공한 반면, 실험집단(이후, 카드뉴스 집단)에게는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서술식 문장으로 작성된 참고자료는 현재 금융감독원 간편재무진단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 PDF 문서를 바탕으로 제도나 상품을 최신화하여 구성하였고,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자료는 카드 각 장이 전달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만 구성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폰트 크기는 크게, 문장의 길이는 짧게 하고, 핵심정보만을 제공하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나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 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가 참고자료를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일정 시간 후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누르는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 모두 처음 도입 부분은 해당 화면에 최소 3초 동안은 머물러 있도록 하였다. 이후 내용은 참고 자료의 분량이나 문장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 집단의 경우는 각 항목(노후 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지원) 나머지 항목들은 15초 후에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여서 적어도 일정 시간만큼은 해당 화면에 머물러 있도록 하였고, 카드뉴스 집단의 경우는 각 항목당 13초 후에 다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를 제공한 후에 참고자료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후 취업, 주택연금, 자산운용, 정부지원 등에 대한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고, 응답자가 해당 정보들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공받은 참고자료가 읽기 쉬웠는지,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자신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참고자료를 읽은 후 은퇴 후 소득확보와 자산 관리 계획을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재무진단 서비스나 자문을 받을 의향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6점 척도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V-2〉 온라인 실험 개요



3. 조사 결과

가. 임의 할당

〈표 V-2〉는 임의 할당된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의 특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개인소득, 자산, 금융자산 비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 은퇴자 비율, 기혼 비율, 가족 수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소득 분포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카드뉴스 집단이 텍스트 집단보다 높은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텍스트 집단이 카드뉴스 집단보다 높았다.³²⁾ 아울러 텍스트 집단 중 모바일 매체를 이용해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카드뉴스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한편 일반 금융이해력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 -test p -value 0.64). 이는 두 집단의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금융이해도가 더 높은 응답자들이 특정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

32) Chi-square test 결과, 개인소득의 경우 $\chi^2(2)=0.2195$ (P -value=0.896), 가구소득의 경우 $\chi^2(2)=6.5840$ (P -value=0.037)이었음

서 이후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기존의 금융이해력 차이보다는 정보 전달 방식의 영향으로 해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표 V-2〉 비교 기준 특성 및 임의 할당 검증

구분		전체	(1)	(2)	(2)-(1)
			텍스트형	카드뉴스형	Pairwise T-test(P값)
(세후)월평균 개인소득	저	0.47	0.47	0.46	0.78
	중	0.40	0.39	0.40	0.65
	고	0.14	0.14	0.14	0.81
(세후)월평균 가구소득	저	0.21	0.21	0.21	0.92
	중	0.45	0.43	0.47	0.03**
	고	0.34	0.36	0.31	0.02**
자산(천만 원)		57.24	59.61	54.88	0.19
금융자산 비율(%)		35.37	35.40	35.34	0.96
(전문)대출 이상		0.73	0.74	0.72	0.44
은퇴 여부		0.20	0.19	0.20	0.41
기혼 여부		0.80	0.80	0.79	0.72
가족 수(명)		2.80	2.80	2.79	0.69
응답매체 모바일		0.27	0.29	0.25	0.02**
금융이해력(6점 만점)		3.84	3.83	3.86	0.64
관측치 수		2,400	1,200	1,200	2,400

주: 1) 개인 (가구) 소득에서 저소득은 300만 원 미만, 중소득은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고소득은 600만 원 이상으로 정의함

2) 소득 분류, 은퇴 여부, (전문)대출 이상, 기혼 여부, 모바일은 더미 변수임

3) **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표시함

나. 이탈에 대한 분석

최종 표본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전달 형식(텍스트 또는 카드뉴스)에 따른 설문 이탈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V-3〉은 조사 중 이탈한 응답자의

수를 보여준다. 참고자료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참고자료 열람 중 응답을 중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텍스트 집단은 참고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이탈한 응답자 수가 카드뉴스 집단보다 많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정보 전달형식에 따라 이탈 시점 분포(또는 설문 완료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6.823$, p-value=0.033), 카드뉴스 집단의 설문 완료율이 텍스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이탈률의 차이로 각 집단의 응답자 구성이 체계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잠재적으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참고자료를 읽는 단계에서 이탈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데 부담을 느낀 응답자들이 중도에 이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이탈 성향이 개인의 금융 이해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면,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응답자 표본은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높은 집단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집단 간 이해력 점수 차이는 실제 정보 제공 방식(텍스트 대비 카드뉴스) 차이의 효과가 아니라 표본 구성 변화에 의한 편의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앞서 수행한 균형성 검정(Balance test) 결과, 일반 금융이해력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탈이 금융이해력 수준의 차이로 인한 특정 집단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탈이 집단별로 다르게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완료자 표본의 잠재적 선택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V-3〉 이탈자 수: 집단별, 시점별

(단위: 명, %)

집단	참고자료 열람 전	참고자료 열람 중	참고자료 열람 후	총 이탈자
텍스트 집단	74 (25.3)	148 (50.7)	70 (24.0)	292 (100.0)
카드뉴스 집단	89 (31.7)	112 (39.9)	80 (28.5)	281 (100.0)
계	163 (28.5)	260 (45.4)	150 (26.2)	573 (100.0)

주: 1) 괄호 안 숫자는 집단별 총 이탈자 중 각 시점의 이탈자 비율을 나타냄

2) Chi-square test 결과: $\chi^2(2)=6.823$ (p-value=0.033)

다. 정독 수준 분포

정보 전달 형식이 응답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참고자료를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집단 간 정독 수준(읽는 노력)이 다르다면, 이해도 점수의 차이는 전달 형식의 효과가 아닌 읽기 행동의 차이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에 앞서, 집단별 정독 수준 분포를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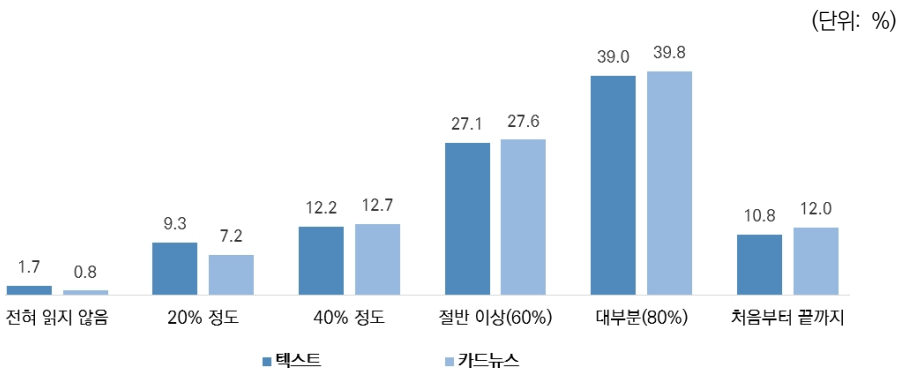
〈표 V-4〉는 집단 간 참고자료 정독 수준을 보여준다. 참고자료의 절반 이상(60% 이상)을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이나 대부분(80% 이상)을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V-3〉은 정독 수준의 전체 분포를 더 자세히 보여준다. 각 응답별 분포를 검토해 보아도 정독 수준의 집단 간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가 보고(Self-report) 응답을 기준으로 볼 때, 텍스트 집단이 카드뉴스 집단보다 더 집중해서 읽었다거나, 반대로 카드뉴스 집단이 상대적으로 대충 읽었다고 불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V-4〉 참고자료 정독 수준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절반 이상(60% 이상)	0.77	0.79	-0.03	-1.48	0.14
대부분(80%)	0.50	0.52	-0.02	-0.98	0.33

주: 절반 이상은 60% 이상 읽은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 대부분은 80% 이상 읽은 경우, 1을 갖는 더미변수임

〈그림 V-3〉 집단별 정독 수준 분포



라. 참고자료 이해력 측정 문항 정답률

제공받은 참고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6개 문항, 연금계좌에 대해 3개 문항을 제시하고 정답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고자료 이해력 측정 문항

C1. 주택연금의 연금지급 방식 중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종신지급 방식 ② 종신훈합 방식 ③ 확정기간혼합 방식
④ 대출상환 방식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종신훈합 방식(종신훈합 방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C2.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주택연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1개 선택]

- ① 60세 가입자 ② 65세 가입자 ③ 70세 가입자
④ 75세 가입자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④ 75세 가입자(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많아집니다.)

C3. 은퇴 후 자산운용의 핵심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 선택]

- ① 금융자산이 단시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자금의 목적에 맞는 자산운용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③ 장기적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는 연금이나 매월 일정한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④ 은퇴 후 자산은 안정을 추구해야 하므로, 수익률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④ 은퇴 후 자산은 안정을 추구해야 하므로, 수익률은 고려사항이 아니다.(금융자산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10년~20년 후에도 사용해야 하므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C4. 기초연금 지급 자격 기준 중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된다.
②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③ 만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40%에게 지급된다.
④ 만 70세 이상 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C5.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C6.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현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7. 퇴직금과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② 만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 ③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 받게 된다.
- ④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체해 받을 수 있다.
-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만 55세 이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C8. 연금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연금계좌를 통해 원리금보장 상품부터 펀드·ETF 등 금융상품 투자 및 운용이 가능하다.
- ②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가입 유지를 해야 한다.
- ③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 ④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⑤ 잘 모르겠음

- 정답: ③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9. 다음 문장이 맞으면 ○, 틀리면 X로 응답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기간 중 일반 금융소득세율이 적용된다.”

① ○ ② X ③ 잘 모르겠음

- 정답: ② X(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운용기간 중 과세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에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표 V-5〉는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관련 문항 정답 수의 합계(6점 만점), 연금계좌 관련 문항 정답 수의 합계(3점 만점), 그리고 총합계(9점 만점)를 제시한다. 소득확보 방안 관련 평균 점수(정답 수)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p-value=0.8), 연금계좌 관련 평균 점수와 총점은 텍스트 집단의 점수가 카드뉴스 집단보다 높았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value=0.00). 두 집단의 이해도 총점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p-value=0.06), 이 차이는 주로 연금계좌 관련 문항의 점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5〉 이해도 총점 비교

(단위: 점)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은퇴 소득확보 문항 점수	4.46	4.45	0.01	0.25	0.80
연금계좌 문항 점수	1.78	1.64	0.14	3.34	0.00
총점	6.24	6.09	0.15	1.85	0.06

주: 소득확보 방안 문항 점수는 소득확보 방안 문항 정답 수의 합계(6점 만점)를, 연금계좌 문항 점수는 연금계좌 문항 정답 수의 합계(3점 만점)를 의미함

〈표 V-6〉은 문항별로 집단의 평균 정답률을 제시하고, 집단 간 정답률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은퇴 후 소득확보 방안 관련 문항 중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 담보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이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보다 높은 반면, 연령과 주택연금액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이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연금계좌 관련 문항들은 모두 텍스트 집단의 정답률이 카드뉴스 집단의 정답률보다 높았는데, 이 중 두 문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V-6〉 이해도 문항별 정답률 비교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A)	카드뉴스 집단 평균(B)	(A)-(B)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주택연금 지급 방식	0.66	0.69	-0.04	-1.92	0.06
연령 vs. 주택연금액	0.58	0.46	0.12	5.80	0.00

〈표 V-6〉 계속

구분	텍스트 집단 평균(A)	카드뉴스 집단 평균(B)	(A)-(B)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은퇴 후 자산운용	0.82	0.81	0.01	0.63	0.53
기초연금 수급자격	0.77	0.78	-0.01	-0.54	0.59
주택연금 담보 대상	0.78	0.86	-0.08	-5.07	0.00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0.86	0.85	0.01	0.87	0.38
퇴직금 및 연금계좌	0.49	0.43	0.06	3.00	0.00
연금계좌	0.62	0.58	0.05	2.38	0.02
연금계좌 수익 과세	0.67	0.64	0.03	1.59	0.11

집단 간 참고자료 이해도 총점에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차이가 모든 응답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참고자료를 보다 충실히 읽은 응답자 집단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정독 수준에 따라 이해도 총점을 비교하였다.

정독 수준은 ‘귀하는 제공받은 자료를 얼마나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읽지 않았다. ② 20% 정도 읽었다. ③ 40% 정도 읽었다. ④ 절반 이상(60%) 읽었다. ⑤ 대부분(80%) 읽었다. 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로 응답한 문항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표 V-7〉에 따르면, 텍스트 집단과 카드뉴스 집단의 점수 차이는 참고자료를 대부분 또는 전부 꼼꼼히 읽은 집단에서 발생하였다.

앞서 텍스트 집단이 참고자료 제공되는 단계에서의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과, 이해도의 차이가 정독률이 80% 이상 높은 집단에 의해 견인된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카드뉴스는 설문 응답의 지속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는 텍스트 형식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7〉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단위: 점)

정독 수준	텍스트 집단 평균	카드뉴스 집단 평균	평균 차이	t-값	p-값(양측)
① 전혀 읽지 않았다.	5.25	4.10	1.15	1.08	0.29
② 20% 정도 읽었다.	4.99	4.63	0.36	1.19	0.24
③ 40% 정도 읽었다.	5.10	5.60	-0.21	-0.94	0.35
④ 절반 이상(60%) 읽었다.	5.79	5.80	-0.00	-0.03	0.98
⑤ 대부분(80%) 읽었다.	6.94	6.58	0.36	3.19	0.00
⑥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7.33	6.92	0.42	1.69	0.09

주: 이해도 총점은 9점 만점임(소득확보 방안 문항 6점, 연금계좌 문항 3점)

마. 회귀분석 결과

집단 간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 차이가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등 개인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서 집단별 특성의 평균을 비교하고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 분포와 모바일 응답 비율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해당 변수를 포함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카드뉴스 제공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카드뉴스 제공 여부와 개인별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Card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1)$$

아래 첨자 i 는 개인을 의미한다. 개인 i 의 종속변수 Y_i 는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이며, $Card_i$ 는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할당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X_i 는 개인의 특성 변수 벡터로, 나이, 성별, 은퇴 여부, 교육 수준, 개인의 월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 모바일 사용 여부, 일반 금융이해도 점수, 정독 수준 80% 이상 여부를 포함하였다.

〈표 IV-8〉은 위 회귀식을 이용한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에 대한 OLS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열은 이해도 점수 총점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 결과로, 카드뉴스 형식의 참고

자료를 제공받은 응답자의 평균 이해도 점수가 서술형 형식의 텍스트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응답자에 비해 이해도 점수가 약 0.16점(9점 만점) 낮음을 보여준다(100점으로 환산하여 약 1.77점). 2열과 3열은 전체 문항 중 각각 은퇴 후 소득확보 관련 문항(6개)과 연금계좌의 활용에 관한 문항들(3개)에 대한 이해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은퇴 후 소득확보 관련 이해도는(2열) 참고자료 형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금계좌 활용 관련 이해도(3열)의 경우 카드뉴스 형식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집단의 응답자 이해도 점수는 서술형(텍스트) 참고자료를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약 0.14점(3점 만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0점으로 환산하여 약 4.67점). 이는 두 집단 간 전체 이해도 점수 차이가 주로 연금계좌 활용 관련 문항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회귀분석의 전체 결과를 담은 <부록 표 IV-4>에 따르면, 참고자료의 형식 외에도 가구소득, 교육 수준, 가구원 수, 응답 매체(모바일 여부), 일반 금융이해력, 80% 이상 정독 여부 등이 참고자료 이해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8>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

설명변수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9점)	(2) 소득확보(6점)	(3) 연금계좌(3점)
카드뉴스 형식 ($Card_i$)	-0.1642*	-0.0212	-0.1430***
상수항	4.7114***	1.8090**	2.9024***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7	0.211	0.176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전체 결과는 <부록 표 IV-3>에 첨부함

앞서 <표 V-7>에서 살펴보았듯이,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한 응답자들에 의해 집단 간 이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점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Card_i + \beta_2 (Card_i \times Read80_i) + \beta_3 Read80_i + X_i \Gamma + \epsilon_i \quad (2)$$

표기법은 회귀식 (1)과 동일하다. 다만, $Read80_i$ 는 응답자 i 가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Card_i \times Read80_i$ 는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할당받은 동시에 참고자료를 80% 이상 정독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이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추가함으로써 참고자료 전달방식의 효과를 정독 수준(80% 미만 대비 80% 이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표 V-9〉 정독 수준별 이해도 총점 비교

정독 수준	카드뉴스 제공 효과
80% 미만($Read80_i = 0$)	β_1
80% 이상($Read80_i = 1$)	$\beta_1 + \beta_2$
정독 수준 별 차이	β_2

회귀식 (2)를 통해 정독 수준이 낮은 집단($Read80_i = 0$)에서 카드뉴스 제공 효과를 β_1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Read80_i = 1$)에서의 카드뉴스 제공 효과는 $\beta_1 + \beta_2$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β_2 는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카드뉴스 효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해당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할 수 있는 계수이다. 즉, β_2 는 정독 수준에 따른 카드뉴스 효과의 이질성을 나타낸다.

회귀식 (2)의 주요 회귀계수 및 선형결합의 추정 결과는 〈표 V-10〉에 제시하였다. 패널 A의 주요 회귀계수를 보면, 카드뉴스 제공 더미의 계수(β_1)는 모든 종속 변수(총점, 소득확보, 연금계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β_1 은 정독 80% 미만 집단($Read80_i = 0$)에 카드뉴스를 제공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하므로, 정독률이 낮은 집단에서는 카드뉴스형 자료와 서술형 텍스트 자료 간 이해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제시한 〈표 V-7〉 분석 내용과 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교호항 계수(β_2)는 정독률이 높은 집단에서 카드뉴스 효과가 낮은 집단 대비 추가적으로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추정한다. 추정 결과, β_2 는 전체 이해도(1열)에 대하여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2, 3열)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 B는 정독률이 높은 집단($Read80_i = 1$)에게 카드뉴스형 자료를 제공했을 때의 전체 효과를 계수의 선형결합 형태($\beta_1 + \beta_2$)로 제시한다. 정독률이 높은 집단은 카드뉴스형 정보가 제공될 때 서술형 텍스트 자료가 주어진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0.31점(9점 만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 환산 시 3.4점). 또한 소득확보 관련 이해도에서도 해당 집단의 카드뉴스 효과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연금계좌 활용 이해도는 서술형 텍스트 자료 집단 대비 0.2점(3점 만점) 낮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100점 만점 환산 시 6.7점).

〈표 V-10〉 참고자료 이해도 분석 결과: OLS+교호항

설명변수 및 선형결합	종속변수: 이해도 점수		
	(1) 총점 (9점)	(2) 소득확보 (6점)	(3) 연금계좌 (3점)
패널 A. 주요 회귀계수 추정 결과			
카드뉴스 형식($Card_i; \beta_1$)	-0.0095	0.0730	-0.0825
카드뉴스×80%이상 정독($Card_i \times Read80_i; \beta_2$)	-0.3040*	-0.1851	-0.1188
상수항	4.5135***	1.6885**	2.8250***
패널 B. 선형 결합 추정 결과			
$\beta_1 + \beta_2$	-0.3135***	-0.1121*	-0.2013***
관측치 수	2,400	2,400	2,400
R-squared	0.269	0.212	0.177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2) 전체 결과는 〈부록 표 IV-4〉에 첨부함

요약하자면, 회귀분석 결과는 텍스트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가 카드뉴스형 참고자료를 읽은 경우에 비해 참고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정독 수준에 따른 참고자료 형식의 효과를 보기 위한 교호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는 정독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의 참고자료 형식의 효과가 총점, 소득확보 관련 점수, 연금계좌 관련 점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 연구에서 사용한 연금계좌 관련 내용과 같은 특정 주제에 한정된 결과인지, 금융 관련 주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고자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내용을 바로 질문한 방식을 취한 만큼, 정보 제공의 단기 효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닌다.